버블 붕괴 vs 단기 바닥… 코스피 급등락 속 엇갈린 전망

하루 평균 5% 급등락에 우려 목소리
개미 18조 매수, 외국인 13조 매도
글로벌 투자은행, 목표치 상향 조정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로 인해 엇갈리는 시장의 평가' 관련 이미지.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미래에셋 강남역WM 입구에서 만난 주부 김모(36) 씨 얘기다. 김 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삼성전자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금리가 0%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 씨 주변에서도 계좌를 열려는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증권사 한 프라이빗뱅커(PB)는"증시가 활황세를 띠자 고객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식사 챙겨 먹기도 힘든 날이 있다"고 말했다.

넋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산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서민·중산층과 청년층 사이에 확산하면서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도 증시로의 자금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고유가 변수 속에서 코스피가 하루 평균 5% 수준에서 급등락하자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코스피, 거품의 끝자락인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이달 일평균 변동률은 약 4.9%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17조61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3조31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을 확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개미(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수급 공방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버블'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는 한국 증시 흐름에 대해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BofA는 이같은 흐름이 아시아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시장 불안정성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BofA는 유가 급등락이 발생하기 이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지수는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거품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극도로 거품이 심한 금을 비롯해 브렌트유,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 은보다도 코스피의 거품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영화 '빅 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가세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에 대해 "기관들이 코스피를 데이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묵시록의 네 기사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코스피가 열어 둬야 할 저점은 48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염동찬 연구원은 "80을 넘어섰던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60까지 안정화됐지만 과거 20년 평균(20.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최대치 대비 하락 폭은 평균 22.5%이며, 이를 적용한 코스피는 4885"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달리는 말

대다수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을 외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지수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정은 기술적 조정 과정으로, 박스권 이후 반등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지정학적 위기 사례 분석 시 충격 이후 3~12개월 내에 지수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20%에서 130%로 올려잡았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상향 조정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주가 조정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8배까지 낮아져 자기자본이익률(ROE)가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 매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평균 6500으로, 강세장의 경우 7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티그룹은 최대 7000, 노무라는 최고치인 8000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이 계속해서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이 당분간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정보기술(IT) 섹터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원화 강세와 내수 회복 등 거시경제 환경 개선, 국내 유동성 유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진전 등을 호재로 거론했다.

다만 중동사태로 치솟은 유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 이후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135달러에 도달하면 전년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가 급등의 파급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비 위축과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돈 몰린 액티브 ETF, 코스닥 새바람 될까

삼성운용·타임폴리오, 자금 1.2조 모여
패시브ETF보다 낮은 수익률 한계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운용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시 상장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는 상장 일주일도 안 돼 1조2000억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 1, 2위가 'KoAct 코스닥액티브'와 'TIME 코스닥액티브'였다. 각각 8188억원, 3812억원 규모의 압도적인 순매수세가 몰렸다.

시장에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삼천스닥'(코스닥 3000)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고, 공약이었던 '오천피'(코스피 5000)를 조기에 달성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의 신규 발견 및 투자자 관심 확대로 인해 상위150 종목에 집중됐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ETF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새로운 수급 유입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TF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추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한화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든다. 'PLUS 코스닥150 액티브'는 기존 대부분 코스닥 ETF와 마찬가지로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았다.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 액티브 ETF' 이미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7일 국내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증권사 5곳, 1분기 영업익 전망 3조 '장밋빛'

증시 활황·단타 매매 증가

증시 호황을 타고 대형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장밋빛 실적 전망을 예고한다. 증시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 또한 크게 늘었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실적 추정치를 토대로 집계된 액수다.

매출액은 4조1591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312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65.92% 늘어나고 매출액은 46.62%, 당기순이익은 64.02% 각각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978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82.56%, 한국금융지주는 7059억원으로 33.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삼성증권은 4189억원으로 25.22%, NH투자증권은 4272억원으로 47.82%, 키움증권은 4977억원으로 52.9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사 호실적의 배경에는 증시 활황과 단타 매매가 늘어난데 따른 리테일 부문 성장세가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45조297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21억 주다. 지난 4일에는 거래대금이 79조47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3630억원, 일평균 거래량 13억 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호실적에 증권사 주가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2만 원대 초·중반이던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약 두 달 만에 197% 이상 급등해 6만9500원을 기록중이다. 시가총액 순위는 50위권 밖에서 18위로 수직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례적인 폭등 배경에는 탄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Q&A

금감원·한은

기후 리스크 관리 점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탄소 감축 정책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기상청과 함께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시나리오는 향후 5년 내 이상기후 심화와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을 가정해 자연재해 피해 규모, 국내총생산 등 주요 경제·금융 변수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규모와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손실 가능성과 보험 손해율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금감원과 한은 역시 별도로 손실 규모를 분석한 뒤 금융회사 결과와 비교해 기후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는 금융회사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용·시장·보험 등 금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